

# 東洋學 연구—日本 東京大를 통한 단상

나 선 희\*

동양화를 그리는 방법에는 기법상에 있어서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붓으로 형태를 그려내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여백을 색칠함으로써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나는 이 글에서 내가 지난 94년 가을학기부터 95년 여름학기까지 꼬박 일년 교환유학생의 신분으로 일본의 동경대 중문과에서 보낸 1년간의 연구 기간을 통해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동경대의 특징을 반추하면서 우리의 동양학 연구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마치 동양화에서 여백을 칠함으로써 대상이 표현되는 방법과 어떤 측면에서 통하는 면이 있다.

한 집단의 인적 구성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뼈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경대 중문과의 인적구성 이해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동경대 중문과의 인적인 구성을 보자.(1995년 기준) 중문학과의 선생님으로 戶倉英美(도쿠라 히데미), 藤井省三(후지이 쇼조), 大木康(오오끼 야스시), 大西克也(오오니시 가쓰야)의 네 분 선생님이 계셨다. 각각의 선생님을 보자면 戶倉英美선생님은 詩歌部分을 맡고 계시는데 동경대학교에서는 드문 여자 선생님이다. 그리고 藤井省三선생은 현대문학 담당선생님이다.

다음으로 大木康선생님은 고대소설과 속문학부분을 전공하셨다. 필자의 전공이 고대소설부분인데 지도 교수님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특히 明代의 小說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중에 계셨다. 처음에 동경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의 호출이 있었다. 가보니 선생님께서는

---

\*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강사

내가 필요하리라고 여겨지는 자료를 쪽 적어서 목록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도서관에 거의 대부분이 있으니 열심히 참고하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大西克也 선생님은 어학담당선생님이시다. 이 大西克也 선생님은 가장 젊으신 선생님이신데, 馬王堆에서 발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대 어학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던 虛辭의 용법을 명쾌하게 설명해 낸 논문으로 명성이 있으신 분이다.

중문과 선생님과 별도로 네분의 인문교관이 있다. 이 분들은 駒場캠퍼스나 東洋學研究센터에 계신다. 그 중에서도 丸尾常喜선생님께서서는 현대문학 특별히 魯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다.

다음으로 助手라는 직책이 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조교와 조교수의 중간정도되는 직급으로 일반적인 행정업무 처리와 함께 논문을 준비중인 연구자들이다. 당시에는 廣瀨玲子和 櫻庭ゆみ子, 두 분이 이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음으로는 博士課程에는 9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었다. 5명의 일본학생과 1명의 한국학생, 그리고 3명의 중국학생이었다. 그 중에서도 전공이 비슷했기에 교분을 나누는 이로서는 小山裕之가 있다. 그는 才子佳人小説로 석사논문을 썼으며, 자신이 논문을 썼던 부분을 中文에서 日文中으로 번역도 하였다. 최근에 중국 天津大學에서 이년간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린다. 다음으로 우리로 치면 석사과정을 일본에서는 修士課程이라고 하는데, 모두 7명의 학생이 있었다. 이 석사과정의 학생들은 박사과정생들보다 자주 과 사무실에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다. 그중에서 宮本徹는 나의 Tutor이었다. 이 Tutor라는 제도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그의 전공은 어학이었는데 고대 어학서적인 廣韻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중이었다. 지금은 박사과정을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根岸宗一郎도 생각한다. 그는 원래 일본 문학전공자였는데 중국문학에 더 흥미를 느껴서 중국문학석사과정으로 들어온 학생이었다. 그렇기 때문인지 선생님들의 기대가 대단했다.

그리고 학부에는 6명의 일본학생들이 있었다. 한 학년마다 3명씩이 있는 꼴이었다. 이렇게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과사무실에는 석, 박사과정생들

과 함께 공부하였다. 그중의 中村薰은 4학년이었는데 결국에는 진학하지 않고 토요다지동차에 취직하였다. 즉 3명이 있어도 1,2명은 진학을 포기하기 때문에 석사과정에 진학하는 학생은 1,2명에 불과하다. 이와 아울러서 研究生제도가 있는데 필자같은 교환유학생은 바로 이 자리에 배당받았다. 이 연구생은 외국학생, 혹은 타대의 학생들이 1년, 혹은 2년까지 적을 들 수 있는데, 그런후에 석, 박사과정으로 진입하였다. 내가 있었을 때에는 모두 7명이 있었다.

이와 아울러 외래교수도 계셨다. 필자가 있었을 때에는 두명의 중국교수님과 한 학기씩 같이 보내게 되었다. 첫학기는 錢志熙교수님이 계셨는데 북경대학교의 부교수였다. 전공은 시가방면이었는데 나중에 듣고보니 중국의 그쪽 방면 원로교수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받는 중국문학계의 소장학자였던 분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잘 모르는 상태였다. 자신의 전공 과목을 중국어로 강의했는데, 모두들 열심히 경청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북경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바톤을 받아서 오신 분이 劉勇強선생님이셨다. 역시 무척 젊은 북경대학교 부교수였는데 내가 전하는 속문학담당이셨다. 마침 같은 전공이라서 수업시간에 중국어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 분도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나 성실하셨고, 또 연구업적도 대단하신 소장선생님이셨다. 어쨌거나 중국의 북경대학에 가지 않아도 일본땅에서 당대의 중국문학계의 가장 신진적인 선생님의 강의를 직접듣고, 여행을 같이 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정말 알찬 시간이 되었다. 요컨대 학생들이 가장 첨단 지식의 국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실제로 흔치 않다. 그런 지식의 전달 차원에서 값진 기회라고 여겨진다.

또한 동경대학에 있으면서 특이하게 느낀 것은 여름계절학기이다. 이 여름계절학기는 우리처럼 학부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원생들에게도 해당된다. 특히 멀리 계신 선생님. 예를 들면 九州(규슈)나 北海道(홋카이도)에 계신 선생님들은 학기 중에는 강의를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명망 있는 선생님들을 여름방학에 초빙해서 한 2-3주정도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학점을 받는다. 이런 강의는 동경대학교 선생님의 마찬가지로 지방에

가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기도 한다. 학생들로서는 새로운 선생님의 새로운 관점의 강의를 들어서 좋고, 또한 학점도 챙길 수 있으며, 선생님들도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실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실제로 부산에 계신 선생님의 강의를 서울에서 학기중에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제 좀더 제도적인 측면에서 중문학과를 넘어서서 동경대학 자체를 말할까 한다. 지금 서울대학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학부제의 실행을 두고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동경대학은 어떠한가? 동경대학은 2+2를 실시하고 있다. 즉 교양학부를 2년 다닌 후에 본학과로 가는 것이다. 그들은 2년이 흐른 후에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에게 입학 초기부터 과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년간의 시간을 주면서 차분히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교육받는 장소도 틀리다. 교양학부는 駒場(코마바)캠퍼스라는 本郷(혼고)캠퍼스보다는 규모가 작은 캠퍼스에서 받게 된다. 그리고 이 교양학부가 끝나면 本郷캠퍼스로 가게 된다. 전철로는 거의 40분 정도의 거리이며, 기풍도 약간 다르다. 말하자면 코마바캠퍼스는 아직 자신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신입생들로 채워져 있어서인지 어찌보면 자유롭다고도 말할 수 있고, 어찌보면 산만한 분위기이다. 이에 비해 혼고캠퍼스는 ‘아 이제부터 좀 열심히 해볼까?’라고 마음먹은 3, 4학년들로 채워져 있어서인지 대체로 진지하고 엄숙하다. 물론 駒場(코마바)캠퍼스에도 자체의 학과가 따로 있어서 어떤 학생들은 이 코마바캠퍼스에서 4년을 지낸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本郷캠퍼스로 간다.

그리고 동경대대학원에서 눈에 띄는 제도는 바로 석사에서 박사로의 진입 부분이다. 우리의 대학과 비교해 보자면 동경대학교의 박사진입은 무조건 논문으로 평가받는다. 이들에게 박사입학시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석사논문을 잘 써야지만이 된다. 필자가 있을 때에도 논문이 수준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출당하는 학생을 보았다. 큰 뜻을 품고 석사과정에 입학

했지만, 이렇듯 논문에 대해서는 냉정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석사과정에 들어온 학생들은 정말로 석사1학기부터 열심히 논문을 준비한다. 물론 강의도 받아야겠지만 그보다는 논문 때문에 방학 때는 더욱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이들에게 어떤 행정적인 실무는 주어지지 않는다. 즉 논문의 시작 시점이 우리와 차이가 나는 것이다. 논문은 그들에게 있어서 박사과정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우리학생들도 숙고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다른 제도로써 tutor제가 있다. 이것은 앞서서도 언급했는데 동경대학을 비롯한 일본의 대학에는 외국학생들을 위해서 tutor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文部省에서 자금을 전액지원하는 제도로써 외국학생을 맡는 학생에게는 약 1만엔(우리돈으로 약 10만원)의 돈이 나온다. 이 학생들이 할 일은 외국학생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필자도 외국생활이 생소해서 참 당황한 적이 많았는데 이런 길잡이 학생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1주일에 한번정도 일본어 공부도 같이 하였다.

동경대학의 인문학의 체계는 서울대학교와 거의 유사하다. 모두 20개의 학과가 존재하는데, 눈에 띄는 과는 인도철학인도문학과이다. 서울대학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이지만 실제로 그 중요성은 동양학연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중국철학과와 서양고전학과가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로 치면 철학과의 분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교학종교사학과 내에 이슬람학연구는 그 역사나 자료의 축적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이 부분을 보았을 때에 필자는 동양학연구에 있어서 인도학이나 이슬람학에 대해서 우리는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이와 함께 인문학 체계의 전반을 볼 때에 동경대학에 한국문학과가 없다는 사실과 서울대학교에 역시나 일본문학과가 없다는 사실이 아직도 남아있는 두 나라의 오래된 역사의 골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외국문학연구에 있어서 가장 가깝고 어찌면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았을지도 모르는 나라간에 서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

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여러 가지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부분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바꾸어야 할 부분은 당연히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는 동경대학교 체계가 지닌 문제점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으로 서울대학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대학원중심대학을 설정해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는 어쩌면 이런 비슷한 형식을 실시하고 있는 동경대학교 중문과를 다니면서 하나의 우려가 생겼다. 그것은 전공자의 수가 형편없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 1년에 고작해야 2-3명의 학생이 중국문학을 배우겠다고 들어오고 그나마도 1-2명이 대학원 진학함으로써 교수님들은 어떻게든 교양과정에 있는 1.2학년들에게 중국문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대학원은 결국 타대학생들이나 외국인 학생들로 채워지게 된다. 물론 대학원 중심대학이라는 것의 취지가 학부가 다른 학생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다양한 학생들과 생각들로 학문의 번성을 원하고 있지만 기본학생들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는 이것은 과의 존립이라는 측면에서 우려할 부분이 아닌가 쉽다.

나는 이번 글을 통해 동양학연구의 발전방향에 대한 직선적인 언급보다는 다른 나라의 다른 대학의 제도를 통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실제로 제도는 한편으로 내용을 규정하므로 제도의 개혁을 통해 내용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동양의 여러나라에 있어서는 근대화라는 제도적인 변혁이 결국에는 근대라는 내용을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이것은 바로 형식을 통한 내용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일본의 동경대학은 우리보다는 학문의 역사라는 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또한 많은 진통을 겪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그들의 형식적인 실험에 주목하면서도 이것을 뛰어넘을 w이론, 즉 좀더 나은 방법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